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Sun Yat-Sen University 한글 성명: 김청미

감정 + 나눔 = 마법

7월의 목더위가 조여오고 세상을
말려버릴 작정인듯 해양이 췌췌 내리
빛준다.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
는 날씨에 나의 불쾌감과 짜증이 머리
끝까지 솟구쳤다. 그때 옆에서 걷던 친
구녀석이 손에 쥐고 있던 아이스 아메
리카노를로 내 입에 넣어주었다. 시원
한 커피, 그와 그 한입에 치솟던 짜증
이 일순 사라졌다. 친구의 커피는 꿀어
들었지만 우리 둘은 덕분에 입에 미소
를 걸게 되었다.

나눔은 참 신기한 단어이다. 나의
것을 타인과 나누었을 때 그량은 확실히
줄겠지만 의외로 얻는 것들 또한 분
명히 존재한다. 특히 나눔이란 단어에
사람의 감성을 더했을 때 ~~우리는~~ 마법같
은 일들이 발생한다.

기쁨에 나눔이 라는 단어를 적용해
타인과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무한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Sun Yat-Sen University 한글 성명: 심청미

으로 증가한다. 대학교 4학년이 되고 주
~~위에서~~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 참
 많은 좌절을 했다. ~~행운~~ 이력서는 수백
 장인데 돌아오는 소식은 없고 대학원
 입시는 소리 ~~이~~ 없는 전쟁이었다. 하루 종일
 밖에서 치이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한숨
 으로 서호를 맞았다. 현실이란 쓴맛 가
 득한 술잔을 복덩리며 서호를 위로했다
~~아한~~ ~~정망도~~ 그러나 이러한 절망 4학년
 이 ~~끝나~~ 끝나면서 같이 끝났다. 힘들었지
 만 우리 결국 해냈다. 치열도 입시도
 결국 이겨냈다. 친구의 치열한 격려 전화를
 면에서 같이 들으며. 대학원 합격조치를
 같이 확인하며 우리는 크나큰 기쁨을
 함께 나누었다. 그 무엇보다 그 고 단 서
 호의 기쁨을 함께 하며 우리는 행복해
 했다. 더 이상 현실의 쓴맛이 아닌 기쁨
 과 행복의 단맛이 가득한 술잔을 기울
 이며 우리는 나눔의 마법을 목격했다.
 슬픔에 나눔이라는 단어를 더 하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Sun Yat-Sen University 한글 성명: 김청미

자신 의 슬픔 을 공유 할 때 그 슬픔 은
 금방 동이 난다. 정말 열심히 준비한
 공모전에서 좌절했을 때에도 인연면접에
 서 번번히 불합격이었을 때에도 겨우
 찾은 안환회사에서 실수를 해 상사에게
 혼났을 때에도, 나의 무수한 좌절을
 옆에서 지켜봐준 친구 ~~덕~~가 있다. 그리
 고 그 친구는 내가 이렇세도 무수한
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게 만
 들어준 동력이기도 하다. 나의 슬픔들을
 그 친구한테 하소연하고 나면 마음이
 훨씬 해졌다.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할 해
 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~~호~~어깨를 두
 댕거려주는 손길에 뻔뻔하다 ~~는~~ ~~말~~ 그 한
 바디에 나의 슬픔은 금방 동이 난다.
 나는 무수히도 많았던 좌절과 슬픔만큼
~~나~~나의 마법을 목격했다.
 사랑에 나눌 것을 더하 나의 그 사랑
 과 사랑을 나눌 때 ~~그~~관계는 더욱
 단단해진다. 첫눈같은 만남이 있다.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Sun Yat-Sen University 한글 성명: 김청미

감지기에 나에게로 내려 앉아 옷속을 파
 고든 짜릿함 같은, 하얗게 내려 앉아
 나를 포근히 덮어오는 눈 같은 사랑이
 었다. 하얗게 내려앉아 투명하게 녹아들
 다 채색으로 다시 피어나는 사람, 처음
 에는 ~~무섭고~~ ~~서늘하고~~ 짜릿함이 무섭고
 낯선 감정에 서둘러 피했지만 종국에는
 매료되었다.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
 서로 주고 받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. 드
 라마를 보며 모를 거라고 배웠었던
 대사가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
 었다. 지옥이라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
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, 이 사람과 함께
 라면 그 어떠한 풍파도 견뎌낼 수 있겠
 다는 생각. 그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
 않을 거라는 자신, 우리는 사랑을 나눴고
 단단해졌다. 사랑의 나뭇속에서 더욱 단
 단해졌다.
 감정을 나누는 것, 그것은 그리 어여
 운 일이 아니다. 이 마법을 배우기 위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Sun Yat-Sen University 한글 성명: 김창미

해 호그와트를 찾아내야 하는 것도 아니
다. 이 마법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
쉬운 것 일지도 모른다. 자신의 감정을 감
추려고 하지 말고 타인과 나누면 그뿐.
또한 타인의 감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이
는 그뿐. 어려운 일이 아니다. 전 내지
말고 조금만 용기를 내 보면 ~~타인에게~~ 된
다. 이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당신은 ~~마~~
~~나~~ 자신의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.
그리고 그 마법 덕분에 훨씬 더 아늑하고
다채로워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
다.